

이명호 “사모펀드 투명성, 공매도 개선 앞장”

〈예탁원 사장〉

예탁결제원 신년 기자간담회
사모펀드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무차입공매도 방지 제도 지원 등
올해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 추진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 등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경영목표를 '시장과 함께하는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정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예탁원의 올해 경영방침은 ▲디지털 기반 혁신금융 추진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선제적 업무리스크 관리 강화 ▲고객 감동의 지속가능 경영 체계 구축 등이다.

◆“제2의 펀드 사태 없다”

예탁결제원은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먼저 비시장성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자등록 및 예탁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또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자산 내역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8월 10일 전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8일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열린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담조직이 구성돼 참가자 의견을 수렴 중이며, 작년 10월부터는 제도개선 지원을 위해 업계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오는 3월 정보 기술(IT) 시스템을 개발하고 4~6월 3개월간 통합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사모펀드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오픈 예정이다.

이명호 사장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지원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부족함이 없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사모펀드에 있어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문

제를 예탁원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모펀드시장 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비시장성 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과 펀드 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 그리고 모험자본 투자시장의 후선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벤처넷 시스템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며 “특히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오픈에 매진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예탁원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지원 시스템을 마

련한다.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 공매도 이론 등이 다양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은 정책당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는 시스템이 시장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3월에 오픈하려고 한다”고 했다.

예탁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입자의 대차거래계약 원본 보관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대차거래계약확정시스템은 인증방식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먼저 내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8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연내 외국인 참가자 대상으로 글로벌 메시지 전송시스템인 ‘SWIFT’ 인증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1년 동안 성취감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오를 다지는 시간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치의 오차 없이 투자자와 국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美주식 프리·애프터마켓 원스톱 시세 확인 서비스

NH투자증권이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모바일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시세를 현재가 및 해외종목 실시간 Best 화면에 제공한다

8일 밝혔다. 프리마켓은 정규장 시작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애프터마켓은 장 종료 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해당 서비스는 NH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QV와 NAMUH(나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 종목순위 및 순위검색에서도 프리마켓·애프터마켓 시세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오후 6시부터 자동 적용되는 해외주식 거래 전용 나이트홈에서도 프리마켓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들은 프리마켓·애프터마켓 거래 시 시세 확인을 별도로 해야했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시세 확인 및 매매까지 가능하다.

프리마켓·애프터마켓 거래는 해외주식 통합주문 화면에서 할 수 있으며, 매수주문 유형 선택 시 프리마켓(지정가), 애프터마켓(지정가)을 선택하고 거래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빠른 오후 6시부터 프리마켓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서비스 편의 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LH, 수도권 주택공급 전담조직 본격가동

2차4부 체제서 3차 12부로 운영
토지구·주민 등 이해관계 조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관련해 기존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LH는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LH는 지난 5.6 및 8.4대책 관련 서울권 후보지 발굴 및 정비계획 검토 등 주택공급 추진을 전담해온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 재개소 및 최근 담당 인력배치 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 2차 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차 12부 체제로 운영된다.

LH는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구·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염연우기자 yw964@

한화투자증권 美시장 투자 랩 3종 출시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화 미국 성장 SPAC 랩’ ‘한화 글로벌 그린 에너지이저 랩’ ‘한화 미국 바이오 IPO 랩’ 3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 미국 성장 SPAC 랩’은 미국의 혁신 성장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수단 중 하나인 스팩(SPAC-기업 인수목적회사)에 투자한다. 이 랩 서비스는 미국에 유망 SPAC을 선별해 운용하며 아직 상장하지 않은 혁신 성장 기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다. 합병 무산 시 예치금이 반환되는 장점이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한화 글로벌 그린 에너지이저 랩’은 기후 변화 시대에 발맞춰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미국에서 성장성과 정책적 수혜 등이 기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배터리 등 관련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다.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 TF)를 선별해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최소 가입 금액은 3000만원이다.

‘한화 미국 바이오 IPO 랩’은 미국에 상장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한다. 신약 매력도와 경영진 건전성 등을 평가해 종목을 선정하고 운용하며 연간 40~80여 개에 달하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들이 상장하는 미국 바이오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다.

/염재인 기자

신한금융투자 카톡선물하기 스타콘 1+1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이영창)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스타콘을 선물하면 스타콘을 하나 더 주는 ‘원플러스원(1+1)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한 개의 아이디(ID)당 한 번 지급된다. 스타벅스 스타콘 4100원권을 선물하면 선착순 1만명에게 동종의 스타벅스 스타콘을 추가로 지급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스타콘은 스타벅스 4100원권·넷플릭스 12000원권·애플 25000원권·테슬라 30000원권 총 4종류로 라인업됐다.

스타콘 금액만큼 언급된 종목이나 투자를 원하는 다른 종목(소수점 가능 종목 내)도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이벤



신한금융투자 스타콘 원플러스원 이벤트.

트는 스타벅스 스타콘에만 적용된다. 해외주식 스타콘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염재인 기자

VIP 위한 비대면 화상 자문 서비스

KB증권, 전문적 화상 장비 도입
스마트 자문센터로 편의성 높여

KB증권이 자산관리측면에서 VIP 고객을 위해 고도화된 비대면 화상 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B증권은 VIP고객에게 제공하는 ‘KB 에이블 프리미어(able Premier) 컨설팅’을 비대면 화상자문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 화상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자문 센터’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 KB증권은 전문적인 화상 장비를 도입했다.

현재 고객의 각종 자문 요청 시 유선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많이 있고, 특별한 경우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서비스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접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원하는 고객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관련제도의 변경도 많았고,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자산관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한 해였기에 오히려 자문 요청이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KB증권은 이점에 주목해 거액자산 고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자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화상 자문 서비스를 도입했다. 화상 자문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 편의성이 제고되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화상 자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박미경 기자 miyung96@